



■ 571 광주 포켓볼 동호회

동호회 이름 포켓볼 지름 57.1mm 따와

100여명 회원 취미 살리며 친목 다져

4구와는 달리 여성 고수들 많아



작은 공을 통해 커다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571 포켓볼 동호회 회원들.

한게임 어때?

한큐에 스트레스 썩~



녹색의 당구

대를 자넷 리처럼 강렬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공이 포켓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에 폐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조그만 녹색 그라운드에 색색의 열정을 내뿜는 '571 포켓볼 동호회'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2000년 10월 말 오프라인 상에서 모임을 시작한 동호회는 2003년 온라인상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오칠일(571)이라는 동호회 이름은 포켓볼 지름인 57.1mm를 따붙인 것이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면서 매주 일요일에는 프리 게임형식으로 정모를 갖고 실력과 친목을 함께 쌓고 있다.

친목 도모도 동호회 활동의 목표이긴 하지만 571 동호회는 '포켓볼'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만큼 광주 지역에서 실력 있는 동호회로 유명하다. 이 동호회는 다양한 포켓볼 게임 중 '나인볼'을 즐긴다.

나인볼은 두 사람이나 돌아가면서 1번부터 9번 공을 놓고 공의 번호 순서대로 포켓에 넣는 게임으로 9번 공을 먼저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포켓볼의 대표적인 게임이다. 나인볼은 8개의 공을 먼저 넣었더라도 결승공인 9번을 넣지 못하면 자기 때문에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머리 싸움이다. 의도적으로 공을 넣지 않기도 하고, 상대 과율을 유도하기 위한 공격을 펼치기도 하는 등 나인볼은 운영의 묘미가 매력적인 스포츠다.

올해에만 아마추어 전국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한 양환석(27)씨는 "포켓볼은 상대와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정적이면서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이다"며 "대회를 통해 연습했던 실력을 검증해 볼 수 있고, 동호회를 널리 알리 수 있어 좋겁다"고 말했다. 산만한 성격이었던 양 씨는 포켓볼을 치면서 집중력도 좋아져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중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움직여야 하는 민감 운동 효과도 좋다.

회장 고찬호(29)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동호회를 찾았다가 포켓볼의 매력에 끌 빠져 전국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대회에 참석하는 등 열렬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남성들이 그러듯 고 회장은 좀 더 동적이고 남성적인 4구를 주로 썼다. 담배연기 자유한 담당자의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게 계기가 돼 포켓볼을 시작했다가 회장역할까지 맡게 됐다.

"공이 포켓에 들어가게 되는 원리를 배워가는 게 재미있었고, 그만큼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게 됐다"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스포츠이다"고 밝혔다. 남성들이 주로 즐기는 4구

에 비해서 남녀가 함께 어울리며 할 수 있는 점도 포켓볼의 장점. 여성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만큼 여성 고수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회원이 처음 가입하면 자유롭게 포켓볼을 치면

서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뒤 포켓볼의 가장 기본

이 되는 자세를 잡아주고, 공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응용 능력을 강조하게 된다. 흥미로 시작했던 회원들도 다양

한 응용 기술을 접하면서 진정한 포켓볼의 묘미에 빠지게 된다.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도 동호회 활동의 활력소가 된다. 참가에

큰 제약이 없는 대회들이 많아 실력을 떠나 대회에 참가하는 특별한

경험도 쌓을 수 있다.

고 회장은 "대회에 참가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주인공이 된 듯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며 "상대의 실수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친밀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회선 자신의 접수에 맞게 9번 공을 먼저 넣는 쪽이 승리한다. 포켓볼에도 4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접수가 있는데, 아마추어의 경우 9점이 최고다. 자신의 접수에 따라 9번 공을 넣어야 하는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충분히 역전의 기분을 만끽해 볼 수 있다. 또 승패를 떠나 경기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실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포켓볼 동호회 회원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같은 동호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어울리면서 친분을 쌓고, 다른 지역에서 온 포켓볼 동호인을 쟁겨주는 게 이곳의 불문율이다. 업무 차 부산에서 종종 광주를 찾는 김은희(33)씨는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571 포켓볼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일과 취미를 동시에 챙긴다.

김씨는 "대회라는 매개체로 자주 만남을 갖는 동호회 특성상 누구를 만나도 환영하며, 손님 맞이를 잘 해준다"며 "언제든지 준비없이 편하게 포켓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켓볼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다.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큐대의 가격은 2만원에서

부터 300만원이 훨씬 넘는 것까지 다양하다. 큐대는 개인의 실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초보자의 경우 2~3만원대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브레이크 큐, 큐인 큐, 접프 큐 등을 장만해 사용

하기도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민연아극시거리 □ 아울렛 1544-0600

M관 스트리트 킹 (18세) 최고급관

2관 테이큰 (18세)

3관 천일이스킨들 (15세) 현의황후 (15세)

4관 나의특별한사랑이야기 (15세)

5관 내기슴쉬는공기 (18세)

5관 GP506 (18세)

6관 어웨이크 (15세) 도데미파슬라시도 (12세)

7관 패슬로지 (18세)

8관 킴 워드 미 (18세)

9관 삼국지-옹의부활 (15세)

광주점 무료팝콘 행사가 좋았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김법고개와 함께) 2시간 30분 초과시 경상요금 부과

영화관에서 제공되는 티켓은

영화관에서 제공되는 티켓은